

양순주 신임 남원소방서장 취임

남원소방서 제22대 서장에 양순주 전 부산소방학교장이 7일자로 취임했다. 양 서장은 1967년 남원 출생으로, 1992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후 전주 덕진소방서,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등 도내 관서와 중앙·19구조본부 기획 팀장 소방청 홍보계장, 국회계장 등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소방점으로 승진 후에는 대구소방본부 특수대응단장, 호남특수구조대장, 장비항공과장, 부산소방학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 풍부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행정 실무를 바탕으로 기획력과 현장 대응능력을 두루 갖춘 지휘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항상 솔선수범하며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중시해 직원들의 선망이 높다.

양 서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남원소방서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조합원에 떡국떡 선물세트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5일, 설을 앞두고 남원농협 전 조합원 7,5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떡 선물세트 전달 행사를 가졌으며, 7일까지 212개 영농회별 영농회장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떡국 떡은 남원시와 남원농협 관내 농업인들이 남원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과 계약 재배를 통해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 참미(남원시 공동 브랜드 쌀)로 만들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 먹거리 생산에 온 힘을 다한 조합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가족과 친지와 함께 정겨운 설 명절 되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에코에너지원, 남원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에코에너지원(주)(대표 유흥민)에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에코에너지원(주)은 어려움에 위치한 기업으로 산림 및 임산연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미이용산림비어온오피스)을 이용해 친환경 목재펄릿과 목재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매년 이웃돕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소외계층을 돋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총 9회에 걸쳐 4천2백만원의 성금을 기부하였다.

전달식에는 유성민 대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에코에너지원(주)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성금은 꼭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우체국, 설 이웃돕기 선물꾸러미 전달

남원우체국(국장 이난수)은 지난 5일 수지면행정복지센터에 선물꾸러미(12품목, 환가액 89만원)를 전달했으며, 수지면은 찾아가는 1일 1가구 방문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난수 남원우체국장은 “설 명절에 둑겨 어르신들에게 추억 계층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으며, 빙미자 수지면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이난수 우체국장 및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지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설맞이 영세장애인돕기 물품전달

장성태 태영기술공사 대표, 후원금 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에 기탁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설맞이 영세장애인돕기 물품전달식’이 6일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사무국에서 열렸다.

영세장애인돕기 물품전달식은 영세장애인에게 삶의 용기와 위로의 행사를로 매년 3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물품전달식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전북지회장인 장성태 태영기술공사 대표가 후원했다. 장 대표는 200만원 상당의 쌀, 라면, 생활용품과 후원금 200만원 등



기탁받은 후원물품과 후원금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영세장애인돕기와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설명절 앞두고 군·소방서 위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6일 갑진년 들어 첫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유관기관(김제예비군중대, 김제소방서)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 격려하고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을 전후하여 관내 군부대와 소방서를 방문해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위문은 김영자 의장, 최승선 안전개발위원장과 김제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명절 연휴 비상근무 체제에 몰입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고 연휴에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김제소방서를 방문해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우리 지역 안전을 지키고 재난 재해 극복에 앞장나주는 여러분들이 있어 매우 든든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김제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군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등 무주군에 이웃돕기 동참 잇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속속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손길에 무주가 더욱 훈훈해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무주제일건설에서 식용유 1.8㎘(1박스) 세트(77만 원 상당)를 판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며 기탁했다.

이승훈 대표는 “명절 때마다 이웃들과 나누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혼자 사시거나 혼편이 어려워 설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제일건설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 때 김이나 식용유, 쌀 등을 기탁; 이웃들과의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주)포령에서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모금한 성금 1백만 원과 ‘베고자리포유’ 1백 상자(3백만 원 상당)를 기탁해 관심을 모았다.

박미란 대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설 명절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무엇보다도 일원분들이 선뜻 마음을 모아주셔서 더욱 흐뭇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주)전북은행에서도 즉석밥과 재래김, 라면,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생활필수품 1백 상자(3백만 원 상당)



를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수 무주군수와 김성수 무주군 지역위원장이 함께 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전성수 무주군 지역위원장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전북은행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무주군이 여러분께 전해지는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결연가정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6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위문 방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또한 진안군 부군수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각 결연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자율방범대, 설명절 범죄예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설명절을 맞아 도민 안전을 위해 금융기관 등 범죄취약지 순찰 및 재래시장 교통안전 활동을 9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군 자율방범대원은 설명절 전후로 금융기관 등 현금 디렉션업소 주변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설시장과 농촌 5일장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자율방범대는 전주 등 15개 연합대에 속하는 288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6,277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방범대원은 시·군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 지역사회에 안전을 위해 경찰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활동을 한다.

자경위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실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방범대 순찰 실비 지원 사업인 ‘자율방범대 협력자안 강화사업’을 실시해 자율방범대원의 방범순찰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대규모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아동·치매노인 등 실종자 합동수색 지원활동도 참여하는 등 도민안전을 위해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농기센터 상록회, 장학금 200만원 기탁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연구부서 직원의 친목 모임인 회원 6명, 상록회에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기탁은 회원들이 “공부하기 좋은 무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모으면서 성사된 것으로 이용기 회장은 “무주 아이들이 도시와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지역을 생각하고 주민을 먼저 해야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들을 돋는 밑거름”이라며 “재단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장학사업을 확대해 지원해주시는 분들의 뜻에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읍교육지원청,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정읍교육지원청 최금희 교육장을 지난 5일 정읍자매원과 정읍애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최금희 교육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과 아이들 보호에 힘쓰는 원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위문금을 전달했고, 자매원 원장과 애육원 원장은 “바쁜 와중에 방문해 주시고 위문금을 전달해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위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교육지원청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설 명절 복지시설 위문방문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오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전주 영이원과 전주 은혜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돋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나눔 실천을 통해 인진문화 확산에 힘쓰는 ‘안전 전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전주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 직원 일동 참석하여 생필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